

아주 특별한 언어로 읽는 인류 문헌유산

히랍어·라틴어·산스크리트어·팔리어·아랍어 등 원전번역 활발

인류의 위대한 문헌유산을 읽으려면 특별한 언어를 익혀야 한다. 히랍어·라틴어·산스크리트어·팔리어·아랍어 등 지금은 죽어 있으나 영원히 정신문화의 정수를 담은 언어들이 그것. 그간 이들 언어에 대한 연구가 깊지 않아 중역본을 읽는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 들어 원전을 옮기는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히랍어와 라틴어 번역이 가장 활발해

번역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언어는 히랍어다. 서양철학 전공자라면 배워야 할 언어기 때문에 번역자도 많은 편이어서 일찌감치 원전 번역이 이뤄진 쪽이다. 최근에도 번역 작업은 꾸준히 현재 많은 책들이 나와 있으며, 분야도 철학·문학·역사학 등으로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천병희 교수(단국대 독문과)의 작업이 가장 눈에 띈다. 천교수는 이미 《오딧세이아》·《일리아드》·《소포클레스 비극》·《아이스퀼로스 비극》(단국대 출판부) 등을 번역·출간했으며 앞으로도 《에우리피데스 비극》과 《히랍 희극》 등을 번역할 예정이다.

히랍철학 쪽에서는 박중현 교수(성균관대 철학과)의 작업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플라톤의 《국가》(서광사)를 번역한 박교수는 앞으로도 여건이 닿는 대로 플라톤의 대화편 25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을 번역할 계획이다. 문학과지성사는 현재 아테네대학에 유학 중인 소장학자 오유석씨의 번역으로 에피쿠로스의 《쾌락》을 발간했으며 앞으로 플라톤의 《파이돈》(남경희 옮김)을 출간할 예정이고, 한길사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오홍식 옮김)를 번역 의뢰 중이어서 히랍어 원전 번역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로마제국의 확장과 함께 중세 유럽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라틴어 번역의 경우, 종교 분야에 치우친 편이다. 서강대 정외재 석좌교수는 1985년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바로오탈)을 번역해왔는데 현재 인쇄작업 중인 6권이 발간되면 1부는 완간된다. 《신학대전》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1265년부터 18년간에 걸쳐 집필한 방대한 저술로 3부까지 완역될 경우, 모두 40여권에 이를 전망이다. 또 분도출판사는 《교부문헌중



특수한 언어로 씌어진 고전들의 원전 번역작업이 활발하다.

인류 정신문화의 정수를 담은 고전에 대한 원전 번역작업이 최근 활발해졌다. 히랍어 분야의 철학·문학·역사학 고전이 꾸준히 번역되어 있고, 라틴어로 된 신학 분야 고전도 계속 이어진다. 산스크리트어로 씌어진 고대 인도문헌과 아랍어 원전의 관심도 커졌다.

서)라는 시리즈로 히랍어와 라틴어 대역본을 출간하고 있다. 이 시리즈에는 히랍어 대역본으로 디다케의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 라틴어 대역본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지의론》·《그리스도교 교양》·《참된 종교》 등 9권이 포함됐다. 성명 교수(서강대 철학과) 등 교부학 전공자들이 이들 책의 번역을 도맡고 있는데, 앞으로도 번역 작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분도출판사 정한고 편집장의 말이다.

번역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씌어진 불교 경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원전 번역이 드물다. 불교계는 현재 지난 1964년부터 시작한 한역 경전 국역화 작업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이 번역 작업은 현재 3분의2 가량 진행된 상태이며 1999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불교 원전 번역은 그 뒤로 미뤄졌다. 하지만 스리랑카·미얀마·타이 등

으로 전래된 남방불교 초기 경전의 경우, 번역된 팔리어본이 몇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봉수씨(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가 번역한 《마하박가》(시공사)다. 최봉수씨는 《팔리어 경전이 들려주는 고타마 붓다》·《...불교의 진리》·《...업과 윤회》(불광출판사) 등도 우리말로 옮겼다. 이밖에 《염신경》·《염수경》(고요한 소리) 등의 팔리어 번역본이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씌어진 고대 인도 문헌에 대한 번역도 시작 단계다. 최근 《우파니샤드》(한길사)를 번역한 이재숙씨(한국외대 인도철학사 강사)는 현재 이광수 교수(부산외대 남아시아어과)와 함께 《마누법전》(한길사)을 번역중이어서 연말께 책이 나올 예정이다. 또한 아랍어 원전에 대한 관심도 커져 최영길 교수(명지대 아랍어과)는 아랍문화의 정수라 할 《꾸란》(사우디왕립 꾸란청)을 완역했으며, 이동은씨(한국외대 아랍어과 강사)는 아랍 최고의 동물우화인 《칼릴라와 담나》(강)를 최근 번역했다.

번역자들은 대부분 원전 번역의 필요성으로 번역의 정확성을 가장 많이 꼽는다. 《오딧세이아》 등 히랍 문학작품을 주로 번역한 천병희 교수는 “원전 번역과 중역의 차이는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과 전해 듣는 것만큼이나 크다”며 “원전 번역을 할 경우에는 오역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주석 중에서 한가지 입장을 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만 남는다”고 말했다. 《우파니샤드》를 번역한 이재숙씨 역시 “《우파니샤드》 영역본의 경우, 서구 정서에 맞추기 위해 불필요하게 쉽게 번역해 영역본을 텍스트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류의 기본적인 문헌유산의 소개는 우리 문화의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국가》를 번역한 박중현 교수는 “서양의 배움을 수 없는 고전인 《국가》도 이제 막 번역한 단계고 아리스토텔레스 전집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재숙씨도 “남아시아학의 1차 자료 번역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2천명 이상의 산스크리트학자가 있는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우리 문화의 자양분 될 터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원전 번역이 오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눈에 띄는 보상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공자들이 많지 않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일부에서는 아직 원전을 번역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심삼진씨는 “원전 번역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온전히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1백명은 넘어야만 올바른 원전 번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얇은 원전번역 전문가층,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출판사·독자와의 악전고투 속에서도 차근차근 인류의 문헌유산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원래 인도의 문헌인 《관차탄트라》를 아랍어로 번안·개작해 《칼릴라와 담나》라는 아랍 문화 유산을 만들어낸 이븐 알 무카트파의 경우처럼, 올바른 원전 번역은 곧 우리 문화유산을 살찌우기 때문이다.

— 김연수 기자